

創 刊 辭

회 장 안 태 완



우리나라의 高分子工業은 60年代 以後 先進 科學 技術을 果敢히 導入・活用함으로써 化學工業과 함께 産業 發展의 原動力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30余年의 짧은 歷史에도 不拘하고 汎用樹脂의 開發 및 應用面에 있어서는 技術革新을 展開할 수 있을 정도로 自體 力量을 갖게 되었으며, 生産規模面에서도 世界的 水準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急進的인 發展에 힘입어 다가오는 21世紀에는 汎用樹脂面에서 世界 5位圈의 國家로 浮上할 展望이며, 特히 情報通信, 半導體, 精密機器 等 하이테크 分野에서 要求되고 있는 高性能, 高機能性 高分子材料를 잘 發展시킨다면 머지않아 先進國 隊列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樂觀의 裏面에는 克服해야 할 難題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國內으로는 物質 特許制度 實施 및 高競爭, 高賃金, 高變化의 新3高 現象 等의 어려움이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先進諸國의 技術開發 競爭 및 技術移轉 忌避 現象이 加速化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이들에 對抗할 수 있는 自主的인 技術開發力 確保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要請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環境에서 高分子工業의 發展과 함께 우리 高分子學會가 創立된지도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歷代 會長님을 爲始한 任員 및 會員 그리고 特別會員 企業體의 積極的인 參與와 獻身的인 努力에 힘입어 어느 學會보다도 많은 成長을 이루었으며, 國內 高分子工業의 發展에 中樞的 役割을 하여왔다고 自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月 開催된 “機能性 高分子의 分子 設計”에 關한 IUPAC 國際 심포지움은 全世界 高分子 科學技術者의 交流와 各種 情報交換의 機會가 되었으며, 韓國 高分子 科學을 紹介할 수 있는 契機가 되었습니다. 또한 本 심포지움은 國內 化學界를 包含한 高分子分野의 國際化에 크게 寄與하였음은 勿論 韓國 高分子科學 發展의 重要한 轉換點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學會誌 亦是 年8回 發行하던 것을 지난해에 10回로 增刊하였으며, 今年들어 우리 學會의 오랜 所望이던 年12回 發刊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學會誌가 늘어남에 따라 內容도 豊富하여 從前의 學會誌 “폴리머”는 學術論文만으로 키워가고 技術分野의 總說과 學會 消息 等은 獨立시켜 “高分子科學과 技術”誌를 創刊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科學技術의 專門化와 高度化에 副應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學會의 큰 기쁨이며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폴리머”와 함께 本 誌가 2000年代를 向하는 高分子工業 發展에 밑거름이 되며 나아가 未來 産業用 高分子材料의 創出과 新素材 開發에 새로운 根源이 될 것을 確信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高分子科學과 技術”의 發刊을 契機로 高分子工業이 더욱 發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그리고 本 誌가 發刊될 수 있도록 많은 協助을 아끼지 않으신 學會 任員 및 會員 여러분께 深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며, 外國의 有名 技術誌에 조금도 遜色이 없는 專門誌로 發展될 수 있도록 많은 激勵을 付託드립니다.